

회원사 동정

한국수력원자력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40개 평가기준에 따라 266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정원 3천명 이상인 공기업 22개 중 1위에 선정됐다.

한수원은 청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렴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사적인 반부패 자율 추진 활동을 강화했고, 정부의 반부패 권고 과제 및 타기관의 청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임직원의 평가에도 청렴성을 반영하고, 내부 평가 요건인 청렴도지수 적용을 본사뿐 아니라 사업소까지 확대·강화해 모든 경영 활동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시행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수원은 2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작년 12월 청렴도 측정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임직원의 청렴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에 좌우된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관리 국제표준인증 ISO22301 취득

한국수력원자력은 KSR인증원으로부터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ISO22301을 취득하고 1월 3일 인증수여식을 가졌다.

ISO22301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의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은 원자력 발전 및 양수 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다. 이로써 한수원은 지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과 안정적 전력 생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게 됐다.

한수원은 작년 본사 및 월성·한울원자력본부, 한강수력본부, 양양양수발전소의 BCMS 구축 및 ISO22301 인증 취득에 이어 금년에 나머지 사업본부들의 인증 취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수원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은 “향후 전 임직원에게 대한 BCMS 교육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원전해체, 신재생 EPC 등 10개 신성장사업 추진

한국전력기술은 1월 1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신성장사업 추진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원자력, 화력 등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수주 여건 악화와 이에 대응한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전기술은 2015년 수립한 '비전 2025, 중장기 경영전략'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원전 사후 관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의 매출 비중을 약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전 2025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미래 신성장 목록(Item) 발굴, 중장기 기술 개발과 사업 개발 전략 수립, 그리고 인력 및 조직 체계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전기술 김덕호 신성장기술전략실장은 원전 사후 관리, 중소형 원자로, 융합 기술, 청정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원전 해체, 고준위 방폐물 처분, 중소형 원자로(SMR : Small & Medium power Reactors), 부유식 발전 플랜트, 초임계 CO₂발전, 석탄가스화 플랜트 이산화탄소 포집(CCS : Carbon Capture & Storage), 환경 설비 개선, 신재생 EPC, 신재생 용·복합 등 10개 신성장사업을 제시했다.

이들 신성장사업들은 한전기술의 설립 목적 및 미래 전략 방향성 등과의 적합성, 기존 기술 기반 또는 기존 사업 영역의 확장 여부에 따른 신규성, 본격적인 사업화 예상 시기에 따른 시장성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서, 향후 한전기술의 신성장사업 확대의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아울러 신성장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술 인력 배치 및 육성, 전담 조직 확충 및 예산 배분, 성과 목표 부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된다.

한전기술은 신성장사업의 중장기 수주 및 매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 및 인력 보강, 제도 구축 등 도 서둘러 완료함으로써 신성장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갈 방침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제4기 K-One Board 출범

한전원자력연료는 1월 10일 사내에서 제4기 K-One Board 발대식을 열고 신입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제4기 K-One Board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영회의체 참관, 경영진과의 소통 프로그램, 사랑의 야식 배달, 동호회 EXPO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입 위원들을 격려하며 "소통과 비전 공유의 한 축으로서 서로 믿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해 줄 것은 물론 세대간 가교 역할로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사 10년차 미만 직원들로 구성되는 청년중역회의체인 K-One Board는 2014년 제1기를 시작으로 그간 업무 개선 및 조직문화 발전 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상하간·부서별 의사 소통 활성화 등 회사의 조직문화 활성화 선도자(Energy Boomer) 및 조직 발전 아이디어 제안자(Change Agent)로서 활동해 왔다.

현대건설

특강 나선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100년 가는 작품 만들어달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신입사원 특강에 직접 나섰다. 건설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원 클럽’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신입사원에게도 뚜렷한 목표 의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1월 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정 사장은 계동 본사 사옥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70여명을 대상으로 ‘CEO 특강’을 진행했다. 2012년 현대건설 사장 취임 후 정 사장이 신입사원을 본사로 불러 특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 사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직접 풀어놓는 등 “건설업은 100년을 가는 작품을 만드는 일인 만큼 성취감도 높다.”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사장은 ‘위기’와 ‘기회’라는 단어를 써놓고 신입사원들에게 “초심을 잊지 말고 신입사원다운 패기로 도전정신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간접 평가도 이어졌다. 정 사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현대건설은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난해의 견고한 실적을 앞으로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서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과징금과 해외 손실 등이 전 분기에 반영돼 대규모 추가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도 예상된다. 올초 3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PLC(전력선통신) 정유공장 프로젝트와 5억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GTL(가스액화처리) 프로젝트 등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에서 2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사업에서의 매출 성장세를 지켜낼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수주 지역 다변화 및 공종 다각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社告

본지 12월호 특집인 ‘원전 안전성 심포지엄’의 내용 중 ‘원전 리스크 평가 연구 연구 현황 및 전망’(발표 : 양준언 원자력연구원 종합 안전평가부장) 기사는 본지 편집실에서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였는데, 발표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정리 내용이 발표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